



PRESS RELEASE

최고상인 금상 3개 거머쥐며 디자인 경쟁력 입증 현대차기아,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 휩쓸다

-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 3 개 등 총 12 개 상 수상
 - ... 기아 EV9, 세계 3 대 디자인상 모두 최고상 석권하며 트리플 크라운 달성
 - ... 현대차 아이오닉 5 N, 고성능 감성 부각한 전용 디자인 적용으로 금상 수상
 - ... 포니 헤리티지 캠페인, 금상 수상하며 단 하나뿐인 큐레이터스 초이스도 선정
- 신타페·신타페 XRT 콘셉트, 동상과 입상 각각 수상해 경험 확장의 가치 인정
- 제네시스 GV80 쿠페, 역동적인 우아함 강조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입상 선정
-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수상 반열에 오르며 디자인 경쟁력 증명
- “고객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선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

현대자동차·기아가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3 개나 거머쥐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과시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 Industrial Design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금상 3 개와 큐레이터스 초이스상(Curator’s Choice Award)을 포함해 총 12 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3 일(금) 밝혔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 대 디자인 대회로 손꼽히는 IDEA 디자인 어워드는 1980 년부터 시작된 북미 최고의 디자인 대회로 매년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PRESS RELEASE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이번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현대차·기아는 자동차·운송(Automotive & Transportation) 부문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 N’과 기아 ‘EV9’으로 최고상인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EV9은 iF 디자인,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금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도 금상을 수상해 세계 3 대 디자인 대회 모두에서 최고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EV9 은 기아 최초의 플래그십 전기 SUV 로 자사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의 정수가 담긴 모델이다.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와 고급스러움, 친환경성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기아 전동화 SUV 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금상을 차지한 아이오닉 5 N 은 앞서 2021 년 금상을 수상한 아이오닉 5 의 디자인을 계승함과 동시에 ▲N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EV N 전용 루미너스 오렌지 스트립 ▲N 전용 리어 스포일러 등 차별화된 디자인이 적용돼 고성능 차량에 특화된 디자인을 갖추고, N 브랜드의 디자인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 ▲도어스커프 ▲메탈 페달 ▲버킷 시트 등으로 감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포니 헤리티지 캠페인은 현대차의 브랜드 우수성을 알리며 브랜딩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특히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포니 헤리티지 컬렉션은 전체 IDEA 디자인 어워드 출품작 중 단 하나의 작품에만 수여되는 큐레이터스 초이스상(Curator’s Choice Award)에도 선정돼 이목을 끌었다.



PRESS RELEASE

포니 헤리티지 컬렉션은 현대차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재조명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한 권의 책이다. ▲제품 ▲도면 ▲개발문서 ▲인터뷰 자료 등 현대차 포니와 관련된 다양한 소스를 스토리 기반으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싼타페와 싼타페 XRT 콘셉트는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각각 동상과 입상을 수상했다.

동상을 차지한 싼타페는 박시(Boxy)한 형태의 강인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긴 휠베이스와 넓은 테일게이트에서 비롯된 유니크한 실루엣이 강렬한 인상을 준다. 싼타페 XRT 콘셉트는 싼타페를 기반으로 루프 랙 위 화물 캐리어, 테일게이트에 부착한 사다리와 카고 박스 등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되도록 디자인됐다.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역동적인 우아함에 기반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입상에 선정됐다.

제네시스 최초의 쿠페형 SUV 인 GV80 쿠페는 럭셔리 SUV 의 고급감과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유의 쿠페 전용 디자인을 더했다. 역동적이면서도 과감한 실루엣이 적용돼 금방이라도 질주할 것만 같은 날렵한 측면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성능 감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는 패키징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포장 시리즈가 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공공모빌리티 ‘스페이스(SPACE)’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브랜딩 부문에서 ▲헤리티지 매거진, 아웃도어 부문에서 ▲멀티랜턴 등이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입상에 선정됐다.



PRESS RELEASE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기아가 고객의 정서적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객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를 석권하는 등 전 세계 권위 있는 자동차 상들을 휩쓸며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수한 상품 경쟁력도 함께 증명하고 있다. [끝]

<사진설명> 현대차·기아, ‘2024 IDEA 디자인상’ 휩쓸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 Industrial Design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금상 3개와 큐레이터스 초이스상(Curator’s Choice Award)을 포함해 총 12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3일(금) 밝혔다.

(사진1) 현대차·기아의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종합

(사진2)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기아 EV9

(사진3)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현대차 아이오닉 5 N

(사진4)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큐레이터스 초이스상을 수상한 현대차 포니 헤리티지 컬렉션

(사진5)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동상을 수상한 현대차 싼타페

(사진6)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입상을 수상한 제네시스 GV80 쿠페

(사진7)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입상을 수상한 현대차 싼타페 XRT 콘셉트

(사진8)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입상을 수상한 현대차 스페이스

(사진9)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입상을 수상한 현대차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PRESS RELEASE

(사진10)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현대차 포니 헤리티지 캠페인

(사진11)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입상을 수상한 현대차 헤리티지 매거진

(사진12)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동상을 수상한 현대차 지속가능한 포장 시리즈

(사진13)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입상을 수상한 현대차 멀티랜턴